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3월 법인세 납부...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3개월 납부연장

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92만 여가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적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청 본청과 전국 광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확인에 착수 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중소기업, 매출감감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 드립니다"…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는 18년도엔 651사, 19년 254사, 그리고 20년에는 783사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반기분 근로장려금 100만 가구시대... 최대 105만원 지급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1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인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오는 9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내문은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고,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